

지구의 날, 한우로 실천하는 저탄소 식탁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식탁에서의 '저탄소 선택'에 대한 관심이

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항공 및 해상 운송이 포함되는 수입 축산물과 달리, 한우는 국내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동해 운송 과정



▲한우 이미지(한우자조금제공)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서 한우 가치 주목

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 경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한우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우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사양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자원순환 구조를 갖춘 한우를 통해 가치 소비의 해답을 제시한다.

▲ '지구의 날' 실천하는 식단, 한우로 푸드 마일리지는 줄이고 탄소배출은 극대화

한우는 국내에서 생산·도축·유통되는 대표적인 로컬푸드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는 수입육에 비해 유통 거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식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식재료 선택 시 유통 단계까지 고려하는 소비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통 경로가 짧은 한우를 선택하는 것이 일상 속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실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자원순환으로 완성하는 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

한우 산업은 농업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똥 등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농업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는 유기질 비료로 가공·환원되어 화학 비료 사용 저감과 토양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축 순환' 시스템은 농업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표적 자원 연계 모델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과 스마트팜 기반 정밀 사육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서, 생산 효율성과 환경 관리 수준을 동시에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를 통해 농가 단위의 환경 관리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한우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한우의 환경적 가치 인식 확대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학생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우와 환경

의 관계를 비롯해 산업 간 연계 구조 소개와 한우 농장 방문 체험으로 구성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우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식품 선택 시 환경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하고 교수는 "한우 산업은 지역 기반의 유통 구조와 경축 순환 시스템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 또한 식품 선택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우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농협사료, 환율리스크 공동대응 체계 강화

계통공장 협력으로 농가생산비 절감 총력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4월 15일 본사 회의실에서 최강필 대표이사 주재로 '26년도 제2차 외환리스크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사료 원료를 공동 구매하는 계통 공장공장의 구매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환율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통 간의 단결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개별 공장의 대응을 넘어 농협계통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농가 부담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농협사료는 환율 예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대외기관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기존 자료에 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 2명을 신규 초청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력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 합류한 위원들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변수들을 진단했으며, 농협사료는 이러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외환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반기 수출 개선과 WGBI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의 흐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요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경상수지 추이 등 다양한 대외 변수가 맞물리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특정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26년도 제2차외환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농협사료 제공)

이식용 돼지 '지노', 세대 거쳐도 유전 특성 그대로

정책 홍보·대국민 소통 강화 나서...콘텐츠 제작 등 본격 활동 시작

농촌진흥청(정장 이승돈)은 이종이식용 복제 미니 돼지 '지노(XENO)'를 장기간 번식·관리한 결과, 장기이식에 필요한 특성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지지티에이1(GGTAI) 유전자를 제거한 이종이식용 복제 미니 돼지 '지노(XENO)'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발 이후 외부 개체를 섞지 않고 내부 개체끼리만 번식시키는 폐쇄번식 방식으로 계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노(XENO)' 계통은 17년 동안 11세대를 거쳐도 장기이식에 필요한 유전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2026년 11세대 지노(XENO) 사진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유전체 분석한 결과, 독립적인 유전 집단을 이루고 있어 고유의 성장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로 '지노(XENO)'를 향후 이종 장기이식을 위한 표준 실험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종이식 연구에서는

돼지마다 유전적 차이가 있어 실험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관된 특성을 가진 돼지를 실험에 활용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연구가 가능해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aboratory Animals'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이경태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이종이식용 돼지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는 돼지를 활용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 연구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구매 시 포인트 적립 지원

구매액의 15% 에코머니로 환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대상으로 환경부 그린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인증을 보유한 농가 중 사육 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대

비 10% 이상 줄인 경우 부여된다. 인증 제품은 일반 축산물과 구분해 별도로 가공·유통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 금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 중 11%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4%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담한다.

포인트 적립은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등 '그린

포스기'가 설치된 주요 유통 매장에서 가능하다.

현재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저탄소 인증 우유를 포함한 14종 유제품이 대상이며, 향후 한우와 돼지고기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사업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소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com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